

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

GLOBAL SUPPLY CHAIN INSIGHT

Weekly 2023년 제75호
2023.10.05.(목)

I. 공급망 주간 이슈 Check!

주요국 정책·규제 이슈

- 【미국】美, 반도체 소재·장비 3억 달러 미만 투자기업 지원계획 발표
- 【EU】EU, 반도체법 발효...“2030년 점유율 20% 목표”
- 【프랑스】‘프랑스판 IRA’ 최종안 발표...“탄소 배출량 고려 필요”
- 【중국】중국, 갈륨·게르마늄 ‘수출통제’ 속 일부 반출 허용

주요 산업별 이슈

- 【배터리】포드, 中 CATL과의 미시간 합작 배터리 공장계획 중단
- 【에너지】美 태양광시장 '50년까지 10배 성장'...韓 기업 기회

주간 이슈 포커스

- 【미국, 반도체】美, 반도체 가드레일 조항 세부규정 최종안 발표

원자재 뉴스 PLUS

- 【9.4주 원자재 동향】中, '23년 희토류 생산 14% 확대...전기차 증산 대응

II. 공급망 더 알아보기

에너지경제연구원, 해운부문의 탄소중립 이행 노력

III. 공급망 소식통

KOTRA, Invest Korea Summit 2023 투자유치박람회 및 상담회
무역협회, 2023 미국 투자진출 전략 세미나 및 상담회 개최

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
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



공급망 주간 이슈 Check!

[작성] KOTRA 글로벌공급망실

주요국 정책·규제 이슈



미국

美, 반도체 소재·장비 3억 달러 미만 투자기업 지원계획 발표

- 9.29일(현지시간) 美 상무부는 자국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소재 및 장비 제조시설에 3억 달러 (약 4천억 원) 미만을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반도체법(CHIPS Act) 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
 - » 이번 발표는 3억 달러 이하의 비교적 적은 투자금이라도 미국 내 반도체 공급망 관련 투자라면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며, 중소기업까지 아우르는 완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전략
 - * 美 상무부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에 반도체 소재·장비 제조시설 투자기업을 추가했으며, 지난 6월 투자액이 3억 달러 이상인 소재·장비 기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공개한 바 있음
- 또한, 투자 규모가 작아졌다는 점을 고려해 지원금 지급 기준과 신청 절차를 완화하고,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발표함
 - » 美 상무부는 지원 형태를 대출이 아닌 보조금으로 하고, 지원 규모를 투자액의 10%로 하되 '미국의 국가·경제 안보와 관련이 있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' 20~30%까지 추가 지원하기로 함
 - * 또한, 투자액이 3억 달러 이상인 소재·장비 기업에는 적용했던 초과 이익 공유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지 않기로 함
 - » 신청 기업들은 '23.12.1~'24.2.1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하고, 이를 기반으로 美 상무부가 신청한 기업들이 별도의 본 신청을 진행하도록 신청 절차도 변경되었음

출처: 미국 상무부('23.09.29), 연합뉴스('23.09.29)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

EU

EU, 반도체법 발효...“2030년 점유율 20% 목표”

- 9.21일(현지시간) 유럽연합(EU)은 반도체 공급망 및 기술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법 발효
 - » EU 반도체법은 현재 10% 수준인 EU의 세계 반도체 점유율을 오는 '30년까지 20%로 2배 늘리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으며,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EU는 430억 유로(약 62조 원)를 투입할 계획
- EU 반도체법 주요 내용으로는 ▲유럽 칩 이니셔티브 ▲공급망 안정성 및 복원력 확보 ▲모니터링 및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이 있음
 - » '유럽 칩 이니셔티브(Chips for Europe Initiative)'를 통해 총 33억 유로 예산을 투입하여 ▲설계역량 강화 ▲파일럿라인 구축 활성화 지원 ▲첨단기술 개발 지원 ▲네트워크 구축 ▲자금조달 촉진 등 지원
 - » 반도체 공급 안정성 및 복원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 '최초시설(FOAK:First-of-a-kind)' 자격을 도입하고, 혜택 지원의 타당성·유효성·효율성 판단기준 마련
 - * 입법기관의 요청으로, '최초시설' 적격 요건을 제조시설 뿐만 아니라, 장비 또는 핵심부품 생산시설로 확대
 - » 집행위와 유럽반도체위원회(ESB) 협력 하에, 유럽 반도체 가치사슬 내 위기 상황 발생에 대비한 '조기경보지표' 개발

출처: KOTRA 브뤼셀무역관 경제통상 리포트('23.09.21)

프랑스

‘프랑스판 IRA’ 최종안 발표...“탄소 배출량 고려 필요”

- 9.20일(현지시간) 프랑스 정부는 관보 게재를 통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(일명 ‘프랑스판 IRA’)을 발표했으며, 전기차 생산·운송에 이르는 전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보조금 지급 대상을 선별할 예정
- 최종안에는 구체적인 ‘환경 점수’ 계산 방법이 담겨 있으며, 철강·알루미늄·기타 재료·배터리·조립·운송 등 6개 부문으로 나눠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 점수를 산정하여 80점 만점 최소 60점 이상인 전기차에만 정부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
- 다만, 탄소 배출량 계산에 적용되는 계수가 국가별로 상이하여 韓·中·日이 美·EU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, 사실상 동아시아 국가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 불리한 계산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 존재
- * (철강) 중국 2.0, 일본 1.9, 한국 1.7, 프랑스 1.4, 미국 1.1 / (알루미늄) 유럽 8.6, 북미 8.5, 중국 20.0, 일본 12.6, 한국 18.5 등 (배터리) 유럽 53, 미국 55, 중국 68, 일본 67, 한국 63
- 프랑스 환경에너지관리청(ADEME)은 전기차별 환경 점수를 계산한 뒤 '23.12.15일 보조금 지급 대상 모델을 공개할 예정이며, 개편안은 내년 1.1일부터 시행될 예정
- 또한, 한국 측이 원거리 생산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한 ‘해상운송 탄소배출 계수’ 조항은 원안대로 유지 되었으나, 철강 등 부문별로 계수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업체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함

출처: 연합뉴스('23.09.20), 한국경제('23.9.20) 등 언론보도 KOTRA 종합

중국

중국, 갈륨·게르마늄 ‘수출통제’ 속 일부 반출 허용

- 중국이 '23.8.1일부터 갈륨·게르마늄 등 희귀광물 수출통제 조치를 시작한 뒤 기업들로부터 수출 허가 신청을 받았으며 일부를 승인했다고 밝힘
- 9.21일(현지시간)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, 하야둥 중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“수출통제가 정식으로 실시된 이래로 상무부는 갈륨·게르마늄 관련 기업들의 수출허가 신청을 잇따라 접수했다”며 규정에 부합하는 일부 신청에 대해 이미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힘
- * 중국은 8.1일부 반도체, 태양광 패널, 레이저, 야간투시경 등 다양한 제품에 널리 사용되는 14종 갈륨·게르마늄 및 그 화합물(품목 유형 기준, HS 8단위 기준 14개 품목)에 대해 수출통제를 실시했으며, 中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갈륨·게르마늄 세계 공급량의 94%와 83%를 차지한다고 밝힘
-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은 中 해관총서 자료를 인용해 중국이 수출통제를 개시한 8월 한 달 동안 갈륨·게르마늄 금속 제품 및 스크랩 등 수출실적이 ‘제로’를 기록했다고 보도
- 中 익명의 중국 게르마늄 무역업자와 생산자는 “갈륨·게르마늄 수출 시 수출허가증(‘이중용도 물자와 기술 수출입 허가증’)이 반드시 필요하며, 허가증 신청·취득 시 최장 45일(근무일 기준)이 걸려 8월에는 해외로 물량을 선적할 수 없었다”고 밝힘

출처: 연합뉴스('23.09.21), 조선비즈('23.09.22) 등 언론보도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

주요 산업별 이슈



배터리

포드, 中 CATL과의 미시간 합작 배터리 공장계획 중단

- 9.25일(현지시간) AP 통신 등에 따르면, 포드는 CATL과 합작하여 미시간주 마셜에 건설 중인 35억 달러 규모 리튬인산철(LFP) 배터리 공장이 경쟁력 있게 운영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배터리 공장 건설을 일시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힘
- 일시 중단한 사유는 미발표했으나, 공화당의 지속적인 반발과 전미자동차노조(UAW)의 파업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. 다만, 투자계획 철회와 같은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님
- 해당 공장은 中 CATL의 지분투자가 아닌 생산기술 라이선스 방식을 취하여 美 IRA의 해외우려집단(foreign entity of concern) 조항을 우회하면서 미국 정치권 내 논란을 야기한 바 있음
-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공화당은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으며, 지난 7월에는 대중특별위와 하원 세입위원회는 포드-CATL 간 계약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바 있음
-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中 배터리 기업의 美 시장 우회진출 시도에 제동이 걸리면서, 한국 기업의 북미 시장 경쟁력이 강화될 여지가 있다고 언급

출처: 연합뉴스('23.09.26), 경향신문('23.09.26) 등 언론보도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

태양광

美 태양광시장 '50년까지 10배 성장...韓 기업 기회

- 9.25일 KOTRA 워싱턴무역관은 '미국 태양광 정책 시장, 우리 기회와 도전 과제' 보고서를 발간하고, 美 태양광 관련 시장이 '50년까지 10배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힘 (보고서 전문 [바로가기](#))
- 보고서에 따르면, 바이든 정부의 탈탄소 정책이 일정대로 진행될 경우 시장규모는 '50년까지 현재의 최대 10배인 1,570기가 와트(GW)까지 증가할 예정이며, 분야별로는 ▲건물용 전력 30% ▲교통용 전력 14%가 태양광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
- 미국은 폴리실리콘, 웨이퍼, 셀 생산 능력 등 태양광 설비 제조업 역량이 부족한 상태로, 이를 보완하기 위해 美 정부는 ▲업스트림 생산 역량 강화 ▲태양광 산업 클러스터 조성 ▲신기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중
- 美 정부는 국내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해 주거용 설치 비용의 30%까지 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며, 상업용 설치 부문에서는 사업자의 설비 투자 또는 전력 생산에 비례해 세제 혜택을 제공
- 또한, 태양광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첨단 제조업 생산공제를 신설하고,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공제 제도를 확대 연장했음
- 향후 10년 美 태양광 시장이 현재의 5배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 美 태양광 유틸리티 시장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수출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
- 우리 기업은 적극적인 현지화 노력을 통해 미국 정책 수혜의 극대화를 노리고, 현지 산업 생태계로 융합 노력이 필요함. 또한, 공급망 리스크 최소화 및 시장-제품 다변화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음

출처: KOTRA 워싱턴무역관('23.09.25), 「미국 태양광 정책 시장, 우리 기회와 도전 과제」

주간 이슈 포커스



미국, 반도체

美, 반도체 가드레일 조항 세부규정 최종안 발표

'반도체 과학법' 추진 경과

반도체 과학법(Chips Act) 발표('22.8월) → 반도체 제조설비에 대한 1차 재정 지원공고('23.2.28일) → 가드레일 조항 초안 발표('23.3.21일) → 의견수렴(~'23.5.22일) → **가드레일 조항 세부규정 최종안 발표('23.9.22일)**

최종안 주요 내용

시설 확장

- ▶ 10년간 우려국 내 시설의 첨단 반도체는 5%, 범용 반도체는 생산 능력 10% 이상 확장하는 것을 금지 (초안과 동일)
- 초안에는 '시설 확장'을 "물리적 공간·장비 추가를 통한 생산능력 확대"로 규정했으나, **최종안은 장비 추가를 제외***
- *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한 생산량 확대를 규제하지 않겠다는 상무부의 기존 견해가 반영되었으며, 이에 따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장비 교체는 허용될 예정

★TIP★ 범용 반도체 기준

- ① 디지털, 아날로그 로직 반도체: 28nm 및 이전 세대
- ② 메모리 반도체: (DRAM) 18nm 초과, (NAND 플래시) 128단 미만
- ③ 상무장관이 공지를 통해 정하는 기술

* 단, ▲국가안보에 중요한 반도체, ▲FinFET, GAAFET 등 구조의 반도체, ▲3D적층 패키징을 활용한 반도체는 레거시 반도체에 해당되지 않음

기술 협력

- ▶ 우려 대상 기관과의 국가안보상 민감 기술·품목에 대한 공동연구·기술 라이선싱을 제한
- 다만, **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활동은 예외 적용**하며, 기존 진행 중인 연구도 상무부와 협의하여 진행 가능
- ▶ 초안에서는 10만 달러 이상을 '중대한 거래'로 규정하여 사실상의 투자 상한선을 제시하였으나, 최종안에서는 동 기준을 폐지

[참고] '반도체 과학법' 주요 내용

반도체 산업에 대한 ▲재정지원 527억 달러(설비투자 인센티브 390억 달러 포함), ▲투자세액공제 25%, ▲가드레일 등 규정

▶ (지원계획) 경제·국가안보, 상업적 타당성, 재무상태, 투자이행 역량, 인력개발, 파급효과 등을 고려*하여 제조 설비투자 기업에 인센티브 지급

* 자사주 매입 제한, 초과 이익 공유, 고객사·공급처 세부 정보 제출, 보육 서비스 제공 의무 등 포함

▶ (가드레일) 인센티브 수혜기업은 중국·우려 대상국에서 반도체 제조능력의 중대한 확장(material expansion)을 10년간 제한

- 中 내 첨단 반도체 제조시설은 10년간 5%, 범용 반도체* 제조시설은 10%로 확장범위가 제한되나, 기술 업그레이드는 가능

* 로직 반도체는 28nm 이상, 메모리 반도체는 낸드 128단 미만, D램 18nm 초과

출처: U.S. Daily Briefing('23.09.22) 등 KOTRA 워싱턴무역관 종합

원자재 뉴스 PLUS



[작성] KOTRA 글로벌공급망실 [참고]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S,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넵

히토류

中, '23년 히토류 생산 14% 확대...전기차 증산 대응

📌 日 닛케이신문은 중국이 자국 전기차 산업 지원을 위해 히토류 생산량 확대에 나선다고 보도 [출처: 닛케이신문(9.26)]

- 中 공업정보화부·자연자원부가 발표한 하반기 광물 생산지표에 따르면, '23년 히토류 생산 킬터는 전년대비 14% 증가한 24만 톤으로 조정 ('18년 이후 5년 연속 증가세)
- 단, 디스프로슘 등 주요국의 對中 의존도가 높은 일부 히토류에 대해서는 생산을 일정 수준으로 킬터 유지
- 로이터통신이 베트남 정부가 '24년 동파오 광산 채굴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보도함에 따라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지 귀추 주목 [출처: 로이터통신(9.25)]

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(9월 4주)

◆ [비철금속] 美 고금리 장기화 우려 및 달러 강세, 주요 거래소의 재고량 증가세로 하방압력

품목	연평균 (U\$/톤)			주간평균 (U\$/톤)		
	'22년	'23.8월	전년비(%)	9.3주	9.4주	전주비(%)
동	8,797	8,628	△1.9%	8,224	8,107	△1.4%
니켈	25,605	23,352	△8.8%	19,613	18,697	△4.7%
아연	3,478	2,726	△21.6%	2,498	2,535	1.5%

* 자료원: LME

📌 (동) 美 인플레이 저감을 위한 고금리 정책 지속 우려로 위험자산 기피심리 확산 및 中 부동산 시장불안으로 전기동 가격 전주대비 하락했으며, 주요 거래소의 동 재고량 확대 추세로 가격 하방 압력 심화

📌 (니켈) 美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따른 달러화 강세로 투자수요가 둔화되는 니켈시장의 수급긴장 완화로 가격 하방압력 발생

▶ 국제니켈연구학회(INSG)는 '23년 인니의 제련 생산능력 확대로 인해 공급과잉(239천 톤)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

◆ [철강] 美 고금리 지속 우려 및 中 중추절 연휴로 가격 하락세

품목	연평균 (U\$/톤)			주간평균 (U\$/톤)		
	'22년	'23.8월	전년비(%)	9.3주	9.4주	전주비(%)
연료탄	348.65	189.19	△45.7%	164.66	163.59	△0.6%
원료탄	364.99	281.12	△23.0%	321.05	329.80	2.7%
철광석	120.26	116.19	△3.4%	123.27	117.91	△4.3%

* 자료원: 연료탄(호주 뉴캐슬 FOB 기준, ICE 기준), 원료탄(호주 FOB 기준, Premium Low Vol), 철광석(중국 주요항 CFR 기준, 62%분광)

📌 (철광석) 美 고금리 지속 전망에 따른 달러화 강세 및 中 중추절·국경절 연휴에 따른 수요둔화로 철광석 가격 하방 압력 발생

▶ 다만, 中 주요 항구 철광석 재고량이 2주 연속 감소하여 상기 하방압력을 일부 상쇄하는 것으로 분석

📌 (유연탄) 9.4주차 국제유가(WTI)는 배럴당 91.25달러로 전주대비 0.8% 소폭 상승한 가운데 연료탄 가격은 中 경기 둔화 우려로 전주대비 0.6% 하락하여 160달러/톤선에서 박스권 횡보

주간 원자재 가격 동향 (9월 4주)

◆ [희소금속] 전방산업 수요 부진으로 가격 하락세 지속, 희토류 광종별 소폭 가격 등락

품목	연평균 (U\$/톤) (코발트: U\$/lb)			주간평균 (U\$/톤) (코발트: U\$/lb)		
	'22년	'23.9월	전년비(%)	9.3주	9.4주	전주비(%)
페로망간	1,551	1,300	△16.2	1,175	1,175	-
탄산리튬	72,290	41,479	△42.6	24,222	23,078	△4.7
수산화리튬	67,180	42,343	△37.0	20,850	20,339	△2.5
코발트	31.20	17.95	△42.5	16.60	16.80	1.2
산화 디스프로슘 (희토류)	380,494	317,720	△16.5	361,100	366,750	1.6
산화 네오디뮴 (희토류)	133,607	81,279	△39.2	73,580	73,300	△0.4

* 자료원: 페로망간(중국 FOB 75%), 탄산·수산화리튬(중국 내수가격, 99.5%min, 56.5%min), 코발트(유럽 in-warehouse 99.8%min), 산화디스프로슘(중국 FOB 99.5%min), 산화네오디뮴(중국 FOB 99.5~99.9%)

- 📌 (페로망간) 中 생산업체는 제강사로부터 10월 입찰가를 앞두고 오퍼가를 유지해 내수가격은 변동 없으며, 수출가도 낮은 해외 수요 속 전주 가격 유지
- 📌 (탄산리튬) 中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탄산리튬 구매 수요 부진과 시장 하락세 지속 전망으로 가격 약세
 - » 수산화리튬은 낮은 생산 이윤 마진으로 하방 폭 제한, 주중 148,500위안/톤 유지
- 📌 (코발트) 中 코발트 금속가는 국경절 연휴 전 구매활동 감소로 가격이 유지되었으나, 연휴 이후 다수 생산업체가 국가비축 물량을 납품에 집중하면서 가격 상방 전망
 - » 유럽 시장가는 계절적 비수기인 여름이 지나고, 항공·가스터빈 산업 등 수요가 살아나며 가격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, 코발트 시장은 장기적으로 공급 잉여 상태가 전망되어 가격상승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
- 📌 (희토류) 산화디스프로슘에 대한 유통업체 및 가공공장의 구매 수요 증가와 제한된 현물 공급으로 가격상승, 산화네오디뮴 등은 연휴를 앞두고 제한된 거래로 가격 소폭 변동

◆ [에너지] 사우디·러시아 원유 공급 감축 정책 연장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 지속

〈국제 유가 동향〉

품목	연평균 (\$/배럴)			주간평균 (\$/배럴)		
	'22년	'23.9월	전월비 등락폭	9.3주	9.4주	전주비 등락폭
두바이유	96.41	93.25	6.79	94.35	94.85	0.50
브렌트유	99.04	92.59	7.48	93.77	94.90	1.12
WTI	94.33	89.43	8.10	90.52	91.25	0.72

* 자료원: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등

- 📌 공급 부족 우려 및 美 이란 관련 제재 추가 부과 등은 상승요인으로 작용, 美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시사 및 美-이란 수감자 교환 등은 상승폭 제한 요인으로 작용

공급망 더 알아보기

해운부문의 탄소중립 이행 노력

[작성] 에너지경제연구원 미래에너지연구실 [참고]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포커스(2023.08.2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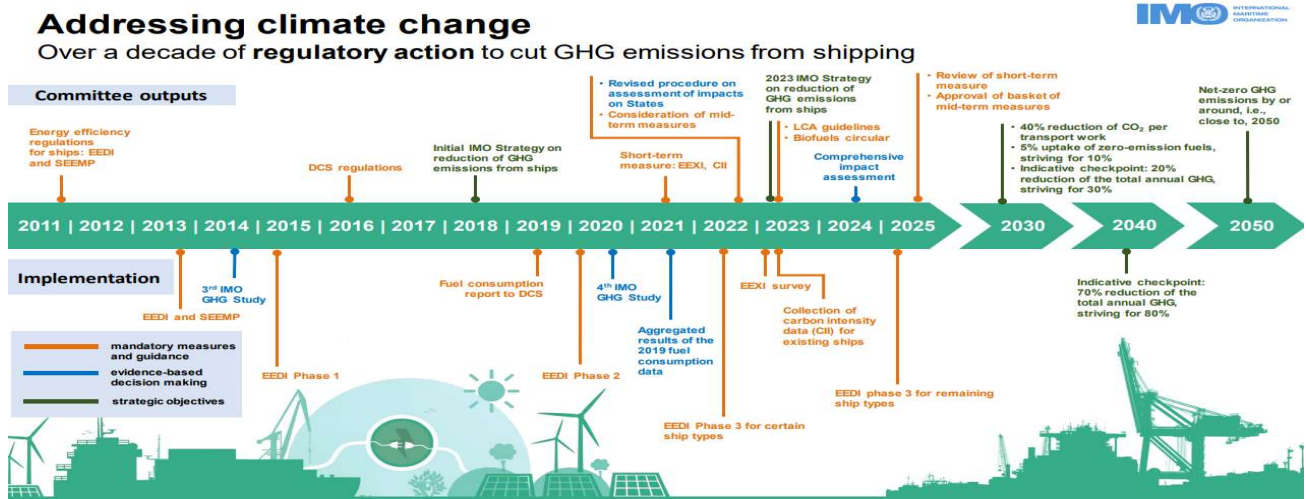
[원문] BNEF(2023.07.11), New IMO Plans for Net-Zero Emission Are Key for Shipping

해운에서 소비되는 연료유는 주로 중유와 경유로, 전 세계 원유 수요의 약 4%에 해당될 정도로 화석연료 비중이 높다. 이러한 해운부문에서 탄소 배출량 제로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보도록 하자.

국제 해운부문의 탄소중립 목표 설정

- ▶ (현황) 해운은 세계 무역의 중추로 전체 무역액의 90%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며,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약 2.8%(약 10억 톤)을 차지하고 수송부문 에너지소비량의 약 8%를 차지
- ▶ (목표) 국제해사기구(IMO)는 해운부문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(MEPC) 회의에서 '50년 국제 해운부문의 탄소배출량 감축목표를 '08년 대비 50%('18년 설정)에서 100%로 상향 조정
- 회원국들은 온실가스를 '08년 총 배출량 대비 '30년까지 최소 20%(30%까지 노력), '40년까지 최소 70%(80%까지 노력), '50년까지 100%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합의

[국제해사기구(IMO)의 해운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타임라인]

* 자료: IMO 웹사이트, <https://www.imo.org/en/MediaCentre/HotTopics/Pages/Cutting-GHG-emissions.aspx> (검색일: 2023.09.18.)

- ▶ (이행 방안) IMO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'목표 기반 연료기준(Goal based Fuel Standard)'과 '탄소부담금제도(Maritime GHG emission pricing mechanism)'를 결합한 조치 도입 추진
- IMO는 해당 규제의 도입이 국가 및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, 감축률과 감축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이행 방안 등을 마련하여 '27년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
- 국제항해선박에 탄소배출 1톤당 일정금액의 부담금을 부과하여, 해운기업들은 운송원가 상승 부담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지만, 선박의 무탄소 또는 탄소중립 연료 전환을 가속화시킬 수 있음

- 또한, '30년까지 국제해운에서 사용되는 총 에너지량의 최소 5%를 저탄소·무탄소 기술 또는 연료(LNG, e-메탄올, 그린수소, 그린암모니아 등)로 전환하고, 10%까지 사용하기 위해 노력

◉ 탄소중립을 향한 국제 해운부문의 장애요인

- ▶ 관련 기술부족, 높은 투자비용, 저탄소·무탄소 bunker링 인프라 부족 등이 주요 장애요인이며, 지금까지 국제 해운부문의 탄소중립 노력은 크게 부족
- 그러나 '20년부터 스크러버 규제 강화, LNG bunker링 인프라 구축, LNG 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LNG 추진선 도입 움직임이 높아졌고, 무탄소 선박연료 기술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시작
- 또한, 은행 및 보험기업들은 해운업계에 대한 대출 및 보험서비스를 결정할 때 기후변화 변수를 고려하도록 하는 포세이돈 원칙(Poseidon Principles)을 도입하기 시작
- ▶ 그럼에도 불구하고, 국제 해운부문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
- IMO의 규정이 175개 회원국의 합의에 의해서 제정되고, 합의과정은 매우 긴 시일을 요구
- 선박소유주, 해운기업, 화물주, 정부, IMO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청정기술 투자에 있어 서로 다른 전략을 선택
 - * 선박 소유기업은 탄소중립 시대에 부응하여 대규모 장기투자 실행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청정연료 선박 건조를 선호하는 반면, 선박을 임대하는 해운기업은 선박의 연료비용을 직접적으로 부담해야 하므로 청정연료 선박을 사용한 운송을 회피
 - * IMO와 선진국 정부는 해운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 해운기업들에게 적극적으로 탄소·무탄소 연료 선박을 통한 해상운송을 요구

◉ 녹색해운회랑 활용

- ▶ 이해관계자들의 서로 상이한 이해를 쉽게 조정하고 방지하기 위해 녹색회랑을 활용할 수 있으며, 해운부문에서 녹색회랑은 탈탄소화를 합의한 양국 또는 3국 이상 국가 간의 특정한 교역 항로임
- 녹색해운회랑은 금융 인센티브와 규정을 통해 저탄소 연료선박을 통한 해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, 적정 수준의 bunker링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며, 안전 및 규제 조치 수립을 목표로 함
- ▶ COP26('21년)에서 주요 해운물류 22개 국가(영국, 미국, 일본, 호주 등)들이 2020년대 중반까지 6개 녹색해운회랑 개선을 목표로 하는 클라이드뱅크(Clydebanks) 선언을 발표
- 항만, 해운선사, 가치사슬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확대하고, 국가행동계획에 녹색해운회랑 개발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제시
- ▶ COP27('22년)에서 미국, 노르웨이, 그리스, 스페인, 한국 등의 14개 국가 정부와 선주·화주 기업, 단체 등이 참여하여 '녹색해운 도전목표(Green Shipping Challenge Target)'를 발표
- 향후 10년 내에 무탄소 연료 생산 및 bunker링 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, 저탄소·무탄소 선박 실증 및 도입, 무탄소 선박을 투입하는 특정 항만 간 녹색해운항로 구축 등을 위해 협력하는 내용을 포함
- ▶ 미국은 ▲한국과 부산항-미국 타코마항간 녹색해운항로, ▲캐나다와 오대호 녹색해운항로 네트워크, ▲영국과 녹색 대서양 횡단 해운항로 구축 등을 위해 협력하고 있음
- 또한 미국은 '녹색해운회랑 착수 프로젝트(Green Shipping Corridors Initiation Project)'를 통해 개도국의 녹색해운항로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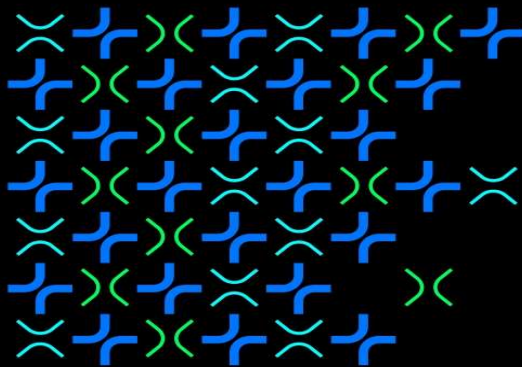


공급망 소식통

Invest Korea Summit 2023 투자유치박람회 및 상담회



[작성] KOTRA 글로벌공급망실

INVEST KOREA
SUMMIT 2023

11월 6일(월) - 8일(수) 부산, BEXCO

장 소 부산 BEXCO 제2전시장 1층
주 최 산업통상자원부 (MOTIE)
주 관 인베스트코리아 (Invest KOREA),
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(KOTRA)

각 투자국의 최고 경영진, 한국의 최고위급 인사, 지자체와 국내기업 등
1,000여명의 글로벌 비즈니스 파트너를 한자리에서 만나보세요!

날짜	프로그램
11월 6일 (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외신간담회 환영리셉션 (전야제)
11월 7일 (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자체 타운홀 미팅 투자박람회 및 투자상담회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개막식 (컨퍼런스 세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부측 발표 세션 (제도, 입지, 규제 등) 첨단산업 분야 발표 세션 (유관 기업) 네트워킹 리셉션
11월 8일 (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투자박람회 및 투자상담회 스타트업 컨퍼런스 글로벌 해외투자 진출 포럼

* 상기 프로그램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



IKS 2023
investkoreasummit.kotra.biz



2023 미국 투자진출 전략 세미나 및 상담회 개최



[작성] 한국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

한국무역협회는 오는 10월 17일(화) ‘2023 미국 투자진출 전략 세미나 및 상담회’를 개최할 예정입니다. 금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투자진출 유의사항 및 정책 활용방안을 제공함과 동시에 미국 주별 1:1 개별 상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 많은 신청 및 참여 바랍니다.

2023 미국 투자진출 전략 세미나 및 상담회 개요

- » 일자 : '23.10.17(화) 14:00~17:00
- » 장소 :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(세미나), 중회의실(상담회)
- » 주최 : 무역협회, 한미경제협의회(KUSEC), 주한미국주정부대표부협회(ASOK)
- » 신청기한 : ~'23.10.16(월) 18:00

세부 프로그램

시간	내용	비고
14:00-14:03	개회사	김기현 본부장 한국무역협회(KITA)
14:03-14:06	환영사	조나단 클리프 회장 주한미국주정부대표부(ASOK)
14:06-14:09	축사	주한미국대사관
【SESSION 1】 2023년 미국 투자진출 유의사항 및 정책 활용방안		
14:10-15:10	제조기업 미국 투자지 선정과 인센티브 협상 전략	신우진 변호사 넬슨 멀린스
15:10-15:20	신산업 분야 상무부 美 투자지원 프로그램	백희숙 상무전문위원 주한미국대사관
【SESSION 2】 미국 주요 州별 투자환경 및 성공사례 발표		
15:20-15:45	GROUP A	
15:45-16:10	GROUP B	
【SESSION 3】 州별 1:1 상담		
16:10-17:00	주별 1:1 상담회	

※ 상기 프로그램 변동 가능

세미나 및 상담회 문의

- » 세미나 문의 : 한국무역협회 국제협력실 (☎ 02-6000-5549, ✉ seha.kim@kita.or.kr)
- » 관련 문의 : 주한미국주정부대표부협회 (☎ 010-9045-0089, ✉ youjung.yoon@intralinkgroup.com)

글로벌 경제지표 (23.10.4.수)



[작성]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

환율

	'21말	'22.말	'23.8말	9/26	9/27	10/4	전일비	22말비
₩/US\$	1,188.80	1,264.50	1,321.80	1,348.50	1,349.30	1,363.50	1.05%	7.83%
선물환(NDF, 1월물)	1,190.00	1,265.30	1,320.80	1,346.60	1,347.30	1,361.60	1.06%	7.61%
₩/CNY	186.51	181.44	181.46	184.67	184.64	186.84	1.19%	2.98%
₩/¥100	1,032.48	945.56	905.53	904.31	904.78	913.57	0.97%	△3.38%
Y/US\$	115.14	133.73	145.97	149.12	149.13	149.25	0.08%	11.61%
US\$/EUR	1.1318	1.0617	1.0911	1.0579	1.0563	1.0455	△1.02%	△1.53%
CNY/US\$	6.3681	6.9630	7.2891	7.3103	7.3028	7.3010	△0.02%	4.85%

* 22년 평균 환율: (₩/US\$) 1292.2원, (₩/¥100) 983.8원, '23년 평균 환율('23.1.1~현재): (₩/US\$) 1301.5 (₩/¥100) 943.2원

유가/원자재 (원유 \$/배럴, 철광석·비철금속 \$/톤)

구 분		'22년 최저(해당일)	'22.12.31	'23.10.2(전일)	'23.10.3	전일비	'22년최저비	'22년말비
원유(두바이)		71.83(12.12일)	78.77	93.12	91.09	△2.0 △2.2%	19.3 26.8%	12.3 15.6%
철광석		79.50(10.31일)	117.35	119.80	119.90	0.1 0.1%	40.4 50.8%	2.6 2.2%
비철 금속	구리	7,000.00(7.15일)	8,387.00	8,100.50	7,960.00	△140.5 △1.7%	960.0 13.7%	△427.0 △5.1%
						△11.5 △0.5%	177.0 8.5%	△103.5 △4.4%
	알루미늄	2,080.00(9.28일)	2,360.50	2,268.50	2,257.00	△105.0 △0.6%	△695.0 △3.6%	△12020.0 △39.5%
	니켈	19,100.00(7.5일)	30,425.00	18,510.00	18,405.00			

반도체

	'21	'22	'23.6월	'23.7월	'23.8월	9/28	10/2	10/3	10월(~3)
D램(8G) 현물가(\$, 기간평균) (%, YoY)	3.99 29.9%	3.07 △23.0%	1.51 △55.2%	1.49 △52.1%	1.46 △47.2%	1.50 △38.8%	1.51 △38.5%	1.51 △38.3%	1.51 △37.4%
낸드(128G) 현물가(\$, 기간평균) (%, YoY)	6.55 14.7%	7.25 10.7%	6.33 △20.9%	6.31 △7.7%	6.32 △3.8%	6.37 △3.1%	6.37 △3.1%	6.37 △3.1%	6.37 △3.0%

SCFI (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)

구 분	'21.12.31	'22.12.30	'23.9.8	9.15	9.22	9.29	전주비(9.22)	'22년말비
SCFI	5046.66	1107.55	999.25	948.68	911.71	886.85	△2.7%	△19.9%

BDI (Baltic Dry Index, 발틱운임지수)

구 분	'21.12.24	'22.12.23	'23.9.27	9.28	9.29	10.2	10.3	전일비(9.18)	'22년말비
BDI	2217	1515	1752	1716	1701	1737	1780	2.5%	17.5%



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

(Korea Center for Global Industrial Supply Chain)

문의

KOTRA 글로벌공급망실

gvc_monitoring@kotra.or.kr

한국무역협회 공급망분석팀

gvc_research@kita.or.kr



메일 구독(수신) 신청

<https://moaform.com/q/lflGnB>



피드백하러 가기

<https://moaform.com/q/MvDmch>

주관기관



산업통상자원부

kotra

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



한국무역협회



에너지경제연구원

협력기관



한국기계산업진흥회



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



한국로봇산업협회



한국바이오협회



한국반도체산업협회



한국비철금속협회



한국석유화학협회



한국섬유산업연합회



한국수입협회



한국자동차산업협회



한국자동차산업협회



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



한국전지산업협회



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



한국철강협회



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



전략물자관리원


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


한국가스공사



한국광해광업공단



한국석유공사



대외경제정책연구원



산업연구원